

미국, 기후변화 위험 확대로 인한 위험인수 중단

이승주 연구원

요약

지난 5월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로 인해 주 전역의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 인수 중단을 선언함. 캘리포니아 대형 보험회사의 잇따른 시장 철수 현상은 기후변화 위험 확대와 캘리포니아 보험당국의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이와 관련하여 미국 손해보험협회는 규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지적함.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의 보험회사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각 주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State Farm)은 기후변화 리스크 확대로 인해 주 전역의 주택보험에 대한 신규 손해보험 인수 중단을 선언함¹⁾
 - 스테이트팜이 공식적으로 밝힌 위험인수 중단 이유는 ‘재무 건전성 개선’으로, 동 결정은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건설 비용과 재보험 보험료 상승, 그리고 기후 재난 노출도의 급속한 확대에 기인함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리스크 노출도 심화로 인해 재보험회사의 40%가 최소 7.5% 이상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며, 북미 내에서 건축자재 비용은 2020년 이래 40% 이상 상승하였음²⁾
 - 스테이트팜 이전에 올스테이트(Allstate), AIG, Chubb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산불로 인한 보험 손실 증가로 인해 주택보험의 신계약 체결을 중단하였으며 남아있는 계약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³⁾⁴⁾
- 캘리포니아 대형 보험회사의 잇따른 시장 철수 현상은 기후변화 위험 확대와 더불어 보험당국(CDI)의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198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103 (Prop 103)에 따라 보험회사는 재산보험요율 변경 시 CDI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6.9% 이상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의 개입을 허용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 인상에 어려움을 겪어 옴⁵⁾
 -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재산보험료는 플로리다주의 평균 보험료(6,000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평균 1,300달러로, 보험회사는 수년간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해 옴
 - 2018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 법안 제824호에 따라 주지사가 산불로 인한 비상사태를 선포했을 경우 해당 시점부터 1년 동안 보험회사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계약의 비갱신이나 취소를 통보할 수 없음⁶⁾

1) State Farm(2023), “State Farm General Insurance Company: California New Business Update”

2) Moodys(2023), “Reinsurers defend against rising tide of natural catastrophe losses, for now”

3) S&P global(2022), “AIG to exit California homeowners insurance market at January-end”

4) The New York Times(2023), “Allstate Is No Longer Offering New Policies in California”

5) Bloomberg Law(2023), “Insurers Fleeing California Market Want Rate-Hike Flexibility”

- 2022년 약 7회의 모라토리엄이 선포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선포된 모라토리엄은 2022년 11월 '루트 화재(Route Fire)'에 기인함
 - 이와 더불어 2022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규정(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의거하여 보험회사는 산불 위험에 대해 위험 완화(mitigation) 조치를 취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료를 차등으로 부과해야 함⁷⁾
 - 보험료를 차등 부과를 원치 않는 보험회사의 경우 산불 위험 노출도가 낮은 일정한 조건의 물건만 인수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일부 보험회사는 해당 제도로 인해 캘리포니아 시장 철수를 결정함
-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대형 보험회사의 캘리포니아 시장 철수 현상과 관련하여 FAIR Plan, 재해 예측 모델 사용 허가 등 규제 유연화의 필요성을 지적함⁸⁾
- APCIA는 민간보험회사의 시장 철수로 인한 FAIR Plan의 가입자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CDI 주도로 이루어진 동 플랜의 보장 확대에 반대하며 CDI에 FAIR Plan 평가 절차에 대한 개혁을 요구함
 - FAIR Plan은 1968년 산불에 취약한 고위험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자산을 부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풀(Pool)로, 지불 능력 초과분에 대한 손실은 해당 풀에 참가한 캘리포니아주 보험회사에 전가됨
 - 또한 캘리포니아의 보험회사는 과거 평균 20년의 손실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으며, 토지 및 도시 개발 속도,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는 재해 예측 모델 사용 허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임
- 루이지애나, 플로리다주의 보험회사 또한 기후 리스크 노출 및 법적 리스크 심화로 인해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였으나 각 주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음
- 루이지애나주는 주택보험시장의 위기를 막기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손해보험회사에 4,500만 달러의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8개의 보험회사가 기후 재해 관련 위험인수를 약속함⁹⁾
 - 루이지애나주는 2020~2021년 4회 연속 허리케인 피해로 약 230억 달러의 보험 손실이 발생하여 12개 보험회사가 파산하고 5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허리케인과 관련한 위험인수를 중단한 바 있음¹⁰⁾
 - 플로리다주는 주택보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 이루어지는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보험법(SB 2-A)을 개혁하였음¹¹⁾
 - 플로리다주의 보험시장 위기는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관대한 법률에서 발생하는 높은 소송비용에 기인하였음¹²⁾

6) CA Department of Insurance(2022), "Mandatory One Year Moratorium on Non-Renewals"

7) milliman(2023), "Understanding the new California wildfire rating requirements"

8) APCIA(2022), "IT'S NOT JUST THE WEATHER"

9) wdsu(2023), "Southeast Louisiana bracing for hurricane season as insurance crisis continues"

10)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3), "Trends and Insights: Louisiana Insurance Crisis"

11) 손민숙(2023), 「플로리다 주택보험 시장의 위기와 재산보험 개혁법(SB 2-A) 승인」,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12)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2), "Trends and Insights: Florida homeowners' insurance crisis"